

# 主體性 있는 技術開發을

中央日報 論說委員 李 命 英

「스탈린」은 「러서」의 落後된 經濟社會에다 社會主義社會를 急進的으로 建設하자니 여간 애로가 많지 않음을 發見하였다. 物質的基礎가 社會主義建設에 不適合하고 거리가 멀었을 뿐 아니라 都是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일을 부지런히 해도 일한만큼 個人的收入이 느는 것이 아니라 一律的인 賃金밖에 받지 못하는 制度였으므로 열심히 일할 사람이 있을수가 없었다. 그래서 「스탈린」이 생각해 낸 것이 「스타하노프」運動이었던 것이다. 物質的基礎가 不足한 것은 별안간 어쩔 道理가 없는 것이지만 그대신 그만큼 더 사람의 勞力을 投入시킴으로써 그 不足을 카바해 나가야할 판인데 그사람이란 것들이 도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니 「스탈린」은 이사람들을 酷使하는 方法을 생각해내야 했던 것이다.

어느炭鑛의 勞務者 「스타하노프」로 하여금 이를 악물고 하루의 作業量의 倍를 達成케했다. 이를 크게 世上에 알리면서 「스타하노프」로 하여금 그와같은 奇蹟을 낳은 動機와 힘이 오로지 「勞働者의 天國인 社會主義祖國의 早速한 建設을 위한 熱望과 意慾이 자기로 하여금 그러한 作業量의 超過達成을 可能케했다고 이렇게 지껄리게 「스탈린」은 조작하고 나서 「스타하노프」에게 勞動英雄의 稱號를 주고 그를 大大的으로 찬양, 선전하기 시작했다. 모든 作業場에 「스타하노프勞動英雄의 뒤를 따라라」는 口號와 깃발이 붙은 것은 물론이다.

「보라! 社會主義建設에 대한 드높은 思想性은 人間의 能力을 倍加했다. 「스타하노프」야말로 世界最初의 社會主義國家 소聯이 낳은 勞動英雄이며 社會主義革命의 으뜸가는 鬥士이다」이렇게 외치는 「스탈린」의 論理속에는 思想만 투철하면 勞動量은 倍加될 수 있으며 勞動量을 倍加치 못하면 思想이 나쁜 것이다. 즉 부르조아 反動分者라하는式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反動分者로 물리면 시베리아流刑이 기다릴 분이다. 모든 勞務者들은 限死코 作業量을 倍加치 않을 수 없었으며 소聯勞動者들에게는 目不忍見의 酷使가 加해졌던 것이다. 思想이 作業量을 左右한다는 것은 物質이 모든 것을 規制한다는 唯物論의 正反對이기도 하려니와 어쨌든 이 「스타하노프」運動이 後日에 와서 中共의 大躍進運動, 北傀의 千里馬運動으로 再版된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이렇게 勞動力을 酷使하고서도 經濟發展이 뜻대로 되지 않자 「스탈린」은 비로서 깨닫기를 技術의 發展向上, 革新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세운 「스로건」이 「技術은 모든 것을 解決한다」는 것이었다. 이 技術의 開發을 위해 「스탈린」이 썼던 또 한바탕의 역지와 무리와 非人道的인 方法만 뻔다면 이 口號自體는 正當했다.

事實 技術은 모든것을 解決한다해도 過言은 아니다. 옛 희랍時代부터 사람을 規定짓는데 두가지 觀點이 있었다. 하나는 사람을 「호모사피엔스」(思惟人)로 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호모파베르」(工作人)로 보는 觀點이다. 물론 工作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思惟) 할 수 있음을 前提로 하고 있으므로 사람을 「호모파베르」로 본 觀點은 생각하는 것으로만 본 「호모·사피엔스」보다는 앞선 觀念이라 할 수 있다. 이 만들어낼수 있다는 것은 分明히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能力임에 틀림없다. 사람은 先天的으로 技術의 素地를 지니고 태어난 것이다.

사람의 技術은 一定한 水準과 범위에 限定된 것이아니었다. 科學의 發達이 技術로 하여금 무한한 發展을 이룩하게 한 나머지 지금 사람의 技術은 宇宙創造主의 神秘에까지 파고들게끔 되었다. 科學技術이 發達한 나라는 先進國家이고 그것이 未熟한 나라는 後進國이다. 東西古今의 戰爭史를 살펴보아도 勝利의 榮光은 發達된 武器에 約束되어 있었다. 技術이 左右한 것이다.

開發途上의 國家로서 富強한 나라를 하루속히 이룩해야할 우리의 경우처럼 科學技術의 振興이 要緊할 수는 또 없을 것이다 政府나 民間이 다같이 科學技術의 振興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지만 事實 관치고 있는 것은 外國技術의 模倣이 고작인 것이 우리의 現實임을 어찌랴. 技術提携로 많은 企業이 續出했지만 先進外國의 경우 그 技術이란 것이 十年이 멀다하고 자꾸만 革新改良되고 있는데 낡은 技術에 입각한 工場施設들이 새 技術들을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科學의 發達이 제자리를 차지 못하고 있는 우리 實情으로서 우리나라를대로의 獨特한 技術의 發達이 어려운 것도 事實이다. 企業體마다 技術의 革新發展을 위한 再投資를 등한시하고 있는 實情에는 科學的基礎의 弱體(知識의 不足·人材의 缺乏·施設의 貧弱等)도 문제이러니와 도시 企業인들이 外國技術의 模倣

導入만을 생각하지 自體的인 解決에는 熱意가 없다는 데 큰 問題가 있을 것 같다.

科學技術의 振興을 위한 研究投資에 企業인들이 머리를 돌리게 할 誘導策이 필요할 것 같다. 民族의 主體性이란 말이 流行語처럼 떠돌고 있지만 이러한 問題意識이 觀念의形態로서만 把握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現實이다. 우리는 이 主體性意識을 具體的으로 工業에 있어서의 科學과 技術에 있어서의 主體性이란 問題로 받아들일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自主獨立的인 工業 우리의 獨自的인 科學技術의 振興이라고 하는 現實的인 目標가 세워지고 또한 追求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角度에서 볼때 우리는 發明特許라고 하는 問題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發明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여 우리의 獨自的인 科學技術의 凱歌이다. 지금 商工部特許局에는 상당한 件數의 發明特許 新案特許등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에게나 企業化되어가고 있는가. 發明家라는 이름의 技術開發家 몇개는 資金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企業化를 못하고 있다. 資

金主들은 發明家와 結托코져할때 너무도 나쁜 條件을 그들에게 強要한다. 결국 技術開發은 햇볕을 못보고만다.

政府에서는 借款숨겨나 있는 企業人들에게만 支拂保證이다. 融資다하는 特惠를 주지말고 새技術을 開發한 發明人들에게도 企業化의 길을 支拂해줌이 어떨것는가. 애써 技術開發에 成功한 사람들이 그 發明한 技術로해서 事業的으로 成功하는 實例를 보여줄때 技術開發에 뜻을 두는 사람들이 속출하지 않겠는가.

科學技術系統에 材能이 있는 靑少年들을 어릴때부터 發掘하여 特殊敎育을 시키는 特殊시스템의 學校도 생각해 볼일이다. 日帝時代만 하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科學과 技術의 發展을 위해 小中學校에서부터 즉성스럽게 설치던가를 한번 회상해 볼일이다.

科學技術이 뒤떨어지면 그만큼 「스타하노프」的 勞働이 性質과 規模의 差는 있더라도 뒤따르게 마련임을 開發을 서둘러야 할 우리의 處地에서 다시한번 새겨봄은 無益하지 않을 것이다.

贊助會員芳名 科學技術센터—建立	大韓地質學會 會長 金玉準	韓國水文協會 會長 安京模	大韓家政學會 會長 張明郁	大韓化學會 會長 金東一	大韓窯業學會 會長 林應極	韓國農工學會 會長 이창구	大韓解剖學會 會長 이명복	韓國纖維工學會 會長 김문상	大韓電氣學會 會長 정성계	大韓金屬學會 會長 楊勳永
	大韓土木學會 會長 安京模	韓國石油產業開發센터 理事長 金東一	大韓鑛山地質學會 會長 文諤柱	서울國際싸이엔스클럽 會長 趙炳俊	大韓建築學會 會長 洪鵬義	農業科學協會 會長 玄信圭	大韓鑛山學會 會長 김중사	韓國技術士會 會長 柳鍾	大韓造船學會 會長 曹奎鍾	韓國規格協會 會長 張炳贊